

韓國印刷協會の市場開拓團



인협, 2012일본시장개척단 파견 60여 바이어와 상담 ... 수출 증대 기대 일본 바이어들 “인쇄기술 우수 · 합리적 가격 매력”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인쇄물 신규 해외시장 개척과 선진국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인쇄시장을 파악하고 공략하기 위해 '2012 일본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 수출상담회는 도쿄 고탄다에 위치한 유포트호텔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글 | 안세민 기자 heroic127@print.or.kr

일본시장개척단의 파견은 정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쇄수출센터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하나로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을 단장으로 청아문화사, 아시아프린팅, 동일정보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주)은성정밀인쇄, 두성칼라, 새한문화사 등 7개사가 참가했다. 인협의 임직원을 비롯해 일본 현지의 에이전트는

시장개척단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년도에 확인한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확실한 교두보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내 패키지 및 라벨 인쇄업체도 참가함으로써 다양한 일본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했다.

인쇄물 수출 방안 적극모색

2011년에 이어 2012년도 수출에 가장 긍정적인 요인은 일본에 부는 한류열풍과 일본대지진의 여파였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됐으며, 2011년 동일본 지진 피해로 인해 정상가동이 어려운 인쇄사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업체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높은 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만족감을 나타내는 일본 업체들이 많았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내 인쇄업체의 해외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대일본 수출은 3440만 달러에 달해 국내 인쇄물 수출의 33.3%를 차지하는 등 인쇄물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장개척단은 수동적으로 수주에 임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인쇄물 수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일본의 많은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수출상담 및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개별 상담 보장, '직지 홍보'

2011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장개척단의 상담회 역시 국내업체들과 현지업체들 사이에 철저한 개별상담이 보장됐다. 상담실은 총 7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테이블별로 파티션을 설치해 각사에서 참가한 참가자들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특히 이번 시장개척단은 철저한 7개 업체의 주력 업무분야를 고려해 개별 상담을 원칙으로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국내 업체 사이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상담시간을 지정해 일본 업체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했다. 또한 행사 전 수많은 확인 작업과 조율로 당일 불참업체를 최소화했으며 부득이하게 불참한 업체에게도 연락처와 참가할 예정이었던 담당자를 확인해 국내 참가업체에게 전달, 상담회가 끝난 후 전화나 이메일로 추후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에 참여한 통역사들도 사전교육을 통해 참가업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세세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담회장 옆에 준비된 대기실에서는 상담을 기다리는 현지 업체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인쇄문화를 상징하는 '직지' 홍보 영상을 상영하였고 간단한 다과도 제공했다.

참가업체



1. 동일정보인쇄(이순석 대표)
2. 두성칼라(김영철 대표)
3. 새한문화사(윤문상 대표)
4. 아시아프린팅(김선덕 이사)
5. (주)은성정밀인쇄(김국 대표이사)
6. 청아문화사(김남수 대표, 김춘옥 팀장)
7. (주)타라티피에스(이원순 대표이사)

전년도보다 나아진 상담업체 접근성이나 시설이 좋아진 상담회장 그리고 인쇄사전교육으로 인쇄를 이해하고 있는 통역사 때문에 더 나아진 상담을 할 수 있었다.



9. 행사가 진행된 도쿄에 위치한 유포트호텔 10. 회담장에 설치된 메인테이블 11~12. 상담회장에서는 직지 홍보영상을 상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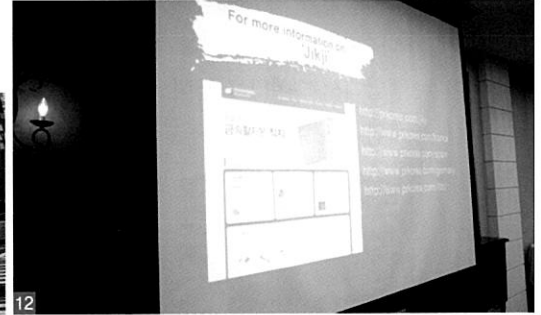
13.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던 인협 김남수 회장과 KJC 최중식대표 14. 원활한 상담을 위한 바이어 확인용 이름표 15. 상담회장에는 대기자들을 위해 간단한 음료가 준비됐다.

16. 지난해 12월 10일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 2012년 시장개척단 해단식이 개최됐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각 업체별로 준비한 기념품과 샘플들이 한지쇼핑백에 담겨 전달됐다. 상담한 업체들을 기억하고 메모가 가능하도록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한국과 일본 업체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담 진행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모든 상담이 끝난 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전년도보다 발전된 행사진행에 대부분 만족감을 표했으며 꾸준한 수출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장개척단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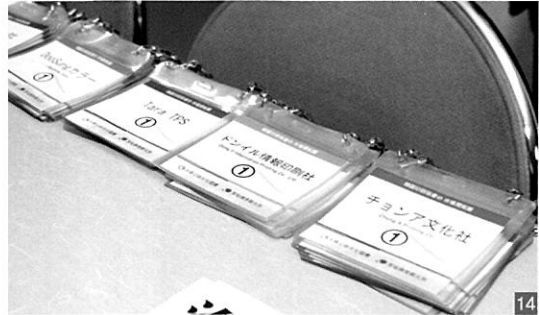
각사 별 부담금 인하 필요

구립 10일 인쇄문화회관 5층에서는 '2012 일본시장개척단'의 해단식이 개최됐다. 시장개척단 단장인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의 진행으로 개최된 해단식에는 동일정보인쇄 이순석 대표, 두성칼라 김영철 대표, 새한문화사 윤문상 대표, (주)타라티피에스 이원순 대표이사, 인협 유창준 전무이사, 이종찬 국제부 부장이 참석했으며, 상담실적 확인과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2013년에 진행될 시장개척단 행사에서 개선했고, 보완해야할 점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2012년 시장개척단에서 개선된 점으로는 전년도보다 많아진 상담업체가 우선 거론됐다. 전년도 3~4개에 불과했던 각사별 상담 업체가 이번에는 8~9개로 늘었으며, 상담업체도 전년도보다 수출에 관심이 많은 업체로 구성됨에 따라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다. 또한 상담회장 역시 접근성과 시설 면에서 전년도보다 발전해 좋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참가한 통역사 역시 인쇄사전교육으로 좀 더 나아진 상담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일본 인쇄물시장개척 활동으로 일본의 인쇄시장에 대한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였다.

보완해야 할 점으로는 아직도 많은 일본 업체들이 시장개척단 행사에 대해 모르고 있고 어떠한 행사인지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형 출판사나 대형 인쇄업체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래서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서 일본동경도서전이나 인쇄기자재 관련 전시회를 통해 일본기업체(출판사 및 대형 인쇄사)에 대한 각종 동향파악 및 사전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양질의 바이어를 섭외해 행사진행 시 우선적으로 접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인협과 국내참여업체 간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일본 상담



●● 대형 출판사나 인쇄사 등 양질의 바이어 섭외가 필요하고 국내 참가업체들이 책임지는 부담금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함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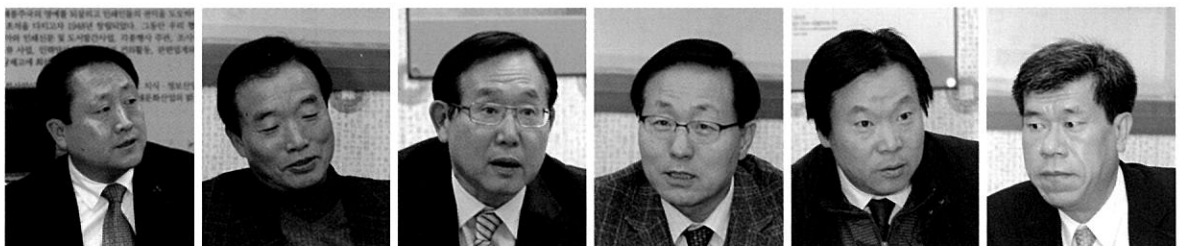
업체를 지속관리하며 일본의 인쇄협회나 출판협회와의 교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시장개척단 상담을 완료한 후 일본 참가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파악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마지막으로 국내 참가업체들이 책임지는 부담금(1인당 14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용 추가 부담)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함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일본을 비롯해 해외시장개척 적극 지원

해단식에서는 2013년도에 진행될 시장개척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각사 대표들은 2013년도에 최소 1~2회 정도 일본

시장개척단을 진행해 성과를 올릴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추후에 인협에서 운영하는 국제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2013년 시장개척단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사들도 친환경인증이나 제품을 활용하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인협은 앞으로도 현지 시장 조사 및 자료제공, 유력 바이어와의 상담주선, 통역서비스, 전시회 참가 홍보 등으로 해외 시장 정보 및 관련 상품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국내 인쇄업체들의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동일정보인쇄 이순석 대표

(주)타라티피에스 이원순 대표이사

두성칼라 김영철 대표

새한문화사 윤문상 대표

대한인쇄문화협회 유창준 전무이사